'가족 아닌 연인·친구와 산다'…비(非)친족가구들에게 이유 들어보니

**동거 시작 1년 된 MZ세대**
"결혼은 부담과 족쇄죠
비혼주의 지금 삶에 만족"

**3년째 함께 사는 60대**
"나이 먹었어도 사람 필요
혼인신고는 할 생각 없어"

**친구끼리 함께 사는 20대들**
"비용 아끼고 함께 해 든든
경제적·심리적으로 도움"

# "피보다 진한 '동거 가족' 입니다"

## 광주·전남 비친족가구원 6만명으로 5년새 63% 늘어 경제적 어려움에 가족 인식 변화

이정민(30)·김슬기(여·28)씨는 1년 전 동거를 시작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원룸에 둥지를 튼 이들은 일명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관계로 결혼 자금이 부담스러워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

이들의 결정에 양가 부모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이제는 수긍하면서 양가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씨는 "결혼은 부담과 족쇄"라면서 "부모의 빚을 포함해 상대방의 가정사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 합의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도 이씨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애인과 동거하거나 친구끼리 함께사는 '비(非)친족 가구'가 늘고 있다. 친족 중심의 정형화된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보다는 동거가 늘고 실리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친족 가구'는 집단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하고 8촌 이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함께 사는 것으로,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말한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비친족 가구는 1만839가구로 지난 2016년(6212가구)에 비해 74.5%나 늘었다.

지난해 전국의 비친족 가구원은 101만 51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광주·전남 비친족 가구원도 급증해 지난해 광주가 2만3387명, 전남은 3만7378명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5년 전(광주·전남 3만7000여명)에 비해 63.1% 오른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연인들 뿐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와 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친구 사이인 박재형(24)씨와 윤경원(24)씨는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의 대학교 앞에서 함께 살고 있다.

올해 초 군대를 제대한 박씨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친구와 같이 살기를 택한 것이다.

박씨가 같은 과 친구인 윤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반반 내고 같이 살기를 제안했고 윤씨가 받아들인 후 이들의 동거는 반년째 진행중이다.

박씨는 "원룸에 혼자 월세 35만원 주고 사는 것보다 투룸에 월세 40만원에서 45만원을 둘이서 분담하면 넓은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살게 된다"면서 "혼자 살 때는 찌개류를 한번 끓이면 먹다가 쉬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둘이 같이 먹다보니 버리지 않는다. 배달도 둘이서 시키면 최소주문 금액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웃어보였다. 또 "투룸에서 살기 때문에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옆 방에 친구가 있다는 게 든든하다"며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비친족 가구는 젊은이들만의 선택은 아니다. 황혼기에 홀로 된 이들도 친족을 꾸리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 살고 있는 김영기(가명·66), 강희진(여·가명·61)씨는 3년째 함께 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이혼을 한 이들이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입신고만 한 뒤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15년 전 배우자를 병으로 잃고 홀로 일만 하면서 자식 세명을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사회로 나가자 홀로 남아 외로워 졌다"면서 "(강씨를 만나) 나의 인생을 찾은 것 같다. 나이를 먹었어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쑥쓰러워 했다.

김씨는 "가끔은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싶지만 나이와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고 이 나이에 첫 결혼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대변화와 맞물려 결혼보다는 동거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탈피하려는 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혼이나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 및 보완을 통해 현실에 맞는 가족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광주시와 북구 안전모니터봉사단원들이 22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소 점검을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도박 신고 부실 조사 지구대 경찰관 직무교육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광주일보 9월 20일자 6면> 지구대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과 팀장에게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조사를 소극적으로 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구대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했으며, 광주 전체 40개 지구대 및 파출소에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상무지구대 경찰관들은 당시 모텔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는 신고자 영상만 훑어보고 도박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현장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오히려 "객실 사진을 함부로 찍는 것도 범죄다"며 신고자를 훈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선거구민에게 조의금과 음식 등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군수와 관련자 8명을 포함 총 9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상경 집회

### "붕괴사고 책임 강력 행정처분"…서울시청·대통령실 앞서 촉구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화정동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000여명은 서울시청 광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 행진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과 청원서에는 "현대산업개발에게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와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주거지원책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 공사 기간 증가의 리스크 전가 방지책 마련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 연장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진정성 있는 노력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피하고자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주거지원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위변제를 진행할 경우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입주지연배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할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주예정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기존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경감시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로도 올해 도시재생사업 누적 수주액인 1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기업이 큰 사고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승승장구할 수 있던 역사적 관행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여수 파출소에 화살총 쏜 20대 징역 1년 선고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현관문 틈에 화살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을 털기 전 연습 삼아 파출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상이 가능한 모의 총포를 파출소에 발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3명은 A씨를 검거하기는커녕 몸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사정상, 급매 합니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

**투자, 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